

태극전사들 '이적 월드컵'



이청용



기성용



박주영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흥망보호에서 뜬 유럽파 태극전사들의 이적설도 술술 흘러나오고 있다. 유럽 축구의 여름 이적시장은 7월에 시작돼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 각 구단은 2014~2015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부족한 자원을 영입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적 소식을 전한 선수는 부상 회복이 더디 끝내 월드컵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김진수(22)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알비렉스 니가타에서 활약해온 김진수는 지난달 13일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으로의 이적을 확정하면서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가장 먼저 동지를 바꾼 태극전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진수가 합류하면서 2014~2015시즌에는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 류승우(이상 레버쿠젠),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 지동원(도르트문트), 홍정호(아우구스

스완지시티 복귀 기성용, 애스턴빌라 이적설 술술 이청용 카디프·박주영 터키행 유력 J리그 김진수,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품으로

부르크) 등 7명의 한국 선수들이 뛰게 됐다. 김진수의 뒤를 이어 이청용(볼턴), 박주영, 기성용(스완지시티) 등의 이적설도 불거지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볼턴에서 뛰는 이청용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1부리그)에서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카디프시티로의 이적설이 떠올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5일 "카디프시티가 볼턴의 측면 공격수 이청용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청용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

지만 볼턴이 이청용의 이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카디프시티는 이청용의 몸값으로 200만 파운드(약 35억원)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선덜랜드 임대를 마치고 스완지시티로 복귀하는 기성용은 최근 애스턴빌라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지 미라는 이날 "애스턴 빌라의 폴 램버트 감독이 기성용을 비교적 싼값에 영입하려고 한다"며 "애스턴 빌라는 경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도 "애스턴 빌라가 기성용의 몸

값으로 600만 파운드(약 105억원)를 책정했다. 기성용은 이번 시즌 애스턴 빌라의 가장 중요한 영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성용의 에이전트 측은 이적설을 부인하면서 "기성용은 일단 스완지시티로 복귀한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무적(無籍) 선수'가 박주영은 터키행이 점쳐지고 있다. 6월말로 계약이 만료돼 소속팀이 없어진 박주영은 에이전트를 통해 새로운 동지를 찾고 있다. 유럽 잔류에 조짐을 맞춘 가운데 터키 언론들은 최근 터키 슈퍼리그의 부르사스포르가 박주영의 영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부르사스포르의 FC 서울에서 사령탑을 지낸 세놀 귀네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어 이적 가능성이 크다는 게 터키 언론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박치기' 정재근 자격정지 5년



농구협 중징계... 영구제명은 면해

농구 경기 중에 심판을 머리로 받은 정재근(45) 연세대 감독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심판 폭행의 책임을 물어 정 감독에게 자격정지 5년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지난 1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고려대와의 2014년 아시아·파시픽 대학 챔피언십 결승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 얼굴을 자기 머리로 가격했다. 그는 해당 심판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퇴장을 당해 벤치를 떠났다. 협회 상벌위원회는 "정 감독의 심판 폭행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중징계의 사유를 밝혔다. 정 감독이 7월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제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돼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재근 감독은 선수 시절 폭발적인 덩치와 고공 플레이를 자랑하며 '저승사자'라는 별명과 함께 사랑을 받은 스타다. 그러나 이날 징계로 정 감독의 농구 지도자 인생은 위기를 맞았다. 정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해서는 안 될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 이기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승부에 집착하다가 우발적인 행동이 나왔다"며 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월드컵 최악 실수는 '기름 손' 아킨 페예프

美 ESPN... 최악 변명은 '핵 이빨' 수아레스

14일 막을 내린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나온 최악의 골키퍼 실수는 러시아의 이고리 아킨페예프(CSKA모스크바)가 저질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15일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나온 각종 '최악'들을 묶어 보도했다. 최악의 골키퍼 실수로는 한국과 러시아의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나왔다. 이근호(상주)의 중거리슛을 아킨페예프가 막다가 어이없이 뒤로 흘리면서 선제골을 내준 장면이다. 러시아는 이후 알렉산드르 케르자코프(제니트)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결국 1-1 무승부에 그쳤고 2무1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최악의 판정은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8강전이 꼽혔다. 당시 주심을 맡은 카를로스 벨라스코 카르발류(스페인)가 선수들의 거친 반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결국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악의 세트피스는 잉글랜드의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탈리아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찬 코너킥이 선정됐다. 루니의 코너킥은 너무 높이 뜬 것은 둘째치고 엔드라인 바깥을 향해 곧바로 이탈리아의 골키퍼로 이어졌다. 최악의 레드카드에는 그라운드에 앉아 있던 독일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에게 다가가 갑자기 박치기를 한 포르투갈의 페페(레알 마드리드)가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최악의 경기는 나이지리아와 이란의 조별리그 경기로 꼽혔고 우루과이의 '핵 이빨' 루이스 수아레스(FC바르셀로나)는 최악의 변명을 한 선수가 됐다. 수아레스는 이탈리아와의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어깨를 깨물고 나서 "충격 이후에 나는 균형을 잃었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 상대 선수의 상체 위로 넘어졌다"면서 "당시 나는 상대 선수에게 얼굴을 맞아 볼에 작은 멍이 생겼고 치아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했다. 최악의 슛 실패를 한 선수로는 독일과의 결승전에 나선 아르헨티나 골수로 이과인(나폴리)이 지목됐다. 이과인은 이날 전반 21분 독일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를 잡았지만 슛이 왼쪽으로 빗나가 땅을 쳤다. /연합뉴스



올림픽 골프선수 선발

랭킹포인트 이번주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 출전 선수를 가리기 위한 세계골프랭킹 포인트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국제골프연맹(IGF)은 이번 주부터 2016년 7월 11일까지 세계남녀골프랭킹을 반영해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 남녀 각 60명을 정할 것이라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세계랭킹 15위에 드는 선수들은 올림픽에 1순위로 출전하지만 1개국에서 최대 4명만이 출전할 수 있다. 현재 세계랭킹으로 올림픽 출전선수를 뽑는다면 미국 남자의 경우 15위 안에 드는 버바 왓슨, 맷 쿠처, 타이거 우즈, 조던 스피스는 출전하지만 세계랭킹 11위인 짐 퓨릭은 출전하지 못한다. 랭킹으로 출전 선수 명단이 먼저 채워지면 그다음은 국가별 쿼터를 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중 출전을 신청한 나라는 최대 2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올림픽 개최국인 브라질은 출전권 1장을 보장받았다. 리우올림픽은 2016년 8월 5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열린다. /연합뉴스